

농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Analysi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Rural Area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in rural areas. The subject included 114 preschool children, along with their mothers, selected from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 rural areas. The instruments included the parenting stress index, social support inventory and the social maturity scale. The statistics used from this data were t-test, one-way ANOVA(Schéff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related variables; gender of child, birth order of child, age of mother,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family income, religion, family type. And also, social support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above variables. The child's social development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variables that related child and the family.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ing stress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hild were relatively negative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ocial support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hild were relatively positive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important factors on predicting social development of the child were found to be birth order of child, age of mother,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family income, religion, family type, daily stress, stress of difficult child,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educational distress, husband support, and other support. Especially stress of difficult child and husband support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predicted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preschool children.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preschool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rural area

* 본 연구는 2004년도 인천대학교 학술 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2005년 3월 20일 채택일: 2005년 5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770-8254

E-mail: chae@incheon.ac.kr

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의 가족에서 핵가족 위주의 부부중심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의 이러한 변화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에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질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해 오면서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이 변화 되고 있으나 실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는 바쁜 직장일과 사회활동 등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들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라 예상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가족의 죽음, 이혼, 사고와 같은 주요한 생활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단순하게 개념화하여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매순간 경험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 건강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잘 예언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신숙재 1997).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가족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존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는 개인생활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한 개인으로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약 받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다루기 어려운 기질과 행동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가 느끼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할 때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침은 물론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연구결과 등을 기초로 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수행되어 왔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작업이 이루어져 왔고(김기현 2000; Abidin 1998 등),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Cassel 등(1979)의 연구를 기초로 여러 연구들이 그 대안으로 사회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다양한 대처자원을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 등은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서혜영(1991)은 사회적 지원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며,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원조를 해줌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을 실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취학 전 아동기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점차 사회적 관계를 또래들로 확대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어린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였느냐에 따라 아동이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아동기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울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 환경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부모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인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서만 연구했지(김제봉 19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유추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 시사되고 있다. Cummings와 그의 동료들(1984, 1985, 1987, 1989)은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성인간의 싸움이나 분노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실험상황에서 성인들이 싸우거나 언쟁을 높이는 장면을 아동이 목격했을 때, 아동은 울거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반응과 때리거나 밀고 소리치는 등 분노반응을 주로 나타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Cummings (198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고 한다(신숙재 1997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은 여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여러 환경 변인이나 가정환경자극, 가정의 구조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영애 1997),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의 가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분석했다. 또한 농촌 지역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관련 정보나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양육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과 차이가 있다(박정희·장영애 2003).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 발달과의 관계도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취학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취학전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 경험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유의한 관련변인들을 근거로 아동에게 보다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농촌지역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 변인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은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취학 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농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취학 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중 양육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을 양육스트레스로 보았다(유우영·이숙 1998). 또한 Boss(1987)는 양육스트레스를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보고 있다(고성혜 199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연령과 일상생활에 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거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김기현 2000; 김영아 1990; 남유리 1989; 이공수 1988; Brown 1981; Lipmans 1974; Thomson & Hendrie 1972)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 연령에 따라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의 정도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권경희 1985; 이현주 1999)들도 있다(김기현 2000 재인용).

또한 김기현(2000)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련 되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 반면(남유리 1989; 선미정 199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더 많아 진다고 보고한 연구들(정영숙 1980; Barnett & Baruch 1985; White & Edwards 1990)도 있다고 한다.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박난희(1987)는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 학력, 종교, 자녀수, 가족형태, 월평균수입, 결혼 기간을 살펴보았는데, 스트레스 전 영역에 영향을 준 변인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었다. 배종렬(1985)도 경제적 긴장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 하였고, 정민자(1984)도 가족생활 단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독립적 영향력 보다 가족수입이 가족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수입이 많으면 가족자원이 많아져 가족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종교, 가족형태,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Kaplan 등(1997)은 사회적 지원을 우리가 의존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정의 하였으며, Cobb(1976)은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 존중 지원, 관계망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로 개념화 하였다. 여기서 정서적 지원이란 개인이 사랑 받고 돌보아 진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며, 존중 지원은 개인이 존중 받으며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고, 관계망 지원은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호간의 관계망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다(김현주 1991).

Cohen과 Wills (1985)는 사회적 지원을 존경지원, 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적 지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과 지원의 지각에 관한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관계망의 크기, 밀도,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등을 조사하는데 인간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진다.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는 객관적인 지원 자원이 있다는 것과 개인이 지원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에게서 지원을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연구되어지고 있다. 신숙재(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

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사이에 개입하여 스트레스 원의 주관적 승인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승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사이에 개입하여 부적응 반응을 억제하고 적응 반응을 촉진하거나 대처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때 스트레스의 승인은 무기력감을 갖게 하거나 자존감 혹은 숙달감의 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구인의 회복과 관계 된다는 것이다. Crnic 등(1983)의 연구에서는 많은 지원, 특히 친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친지의 지원보다도 배우자와의 만족이 양육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즉, 배우자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줄때, 자녀양육으로 인해 박탈되는 개인적인 자유시간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각종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배우자의 지원 정도가 적을 때, 공동 양육 책임자로서 어머니의 양육부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결혼 자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녀양육 과정에서 더 스트레스가 가중 될 수 있다.

Unger와 Wandersman(1998)의 연구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 행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압력이라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지원은 사회적 지원이 낮을 때 부모행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켰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은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 때,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춘애(1994)도 취업모의 경우에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황인향(1993)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사무직 취업주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을 뿐, 아동의 발달, 특히 사회성 발달과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3. 사회성 발달

한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일컬어 사회성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성의 개념에 대해 Ambrose(1988)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되는 행동 성향으로, 가치, 이념, 문제해결방법,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계봉(1996)은 사회성을 사회적으로 관계하려는 의식을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는 성질이며, 다른 사람과 사귄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적 적응성, 대인 관계의 원만성이라 보았다.

사회성 발달은 아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사회마다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념과 정의도 광범위하여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여 주기도 하는데 대체로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고 타인에 의해 수용되어지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하며 성인 또는 동료와 유능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그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민혜영 2001).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며,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위와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간의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Combs & Slaby 1977). 아동은 대인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대인간의 갈등이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아동이 타인과 상화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의 내용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대화와 협의 능력, 순서를 지키거나 기다릴 줄 아는 행동,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78)에서는 유아의

발달 수준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내적통제, 다른 아동과의 상호관계,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변인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여기서 내적통제란 아동자신이 기대하는 표준적 행동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능력, 즉, 자기 자신이 설정한 내적준거와 표준에 따라서만 행동하고자 자기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관계는 아동이 타인과 비공격적이며 수용적인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치원에서의 안정감은 아동이 유치원에서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이 아닌 위안감과 편안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동기는 행동을 개시하여 과업을 훌륭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뜻하며,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추구해 나가는 탐색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허형 등 1978).

위와같은 변인들이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라면 이들 변인의 발달도 역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이들 변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 다른 유아와의 원활한 상호관계,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변인을 이시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 변인으로 보고 이들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아동 관련 변인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의 경우 Baumrind와 Black (1967)은 아동의 행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들을 관찰한 결과 남아는 더욱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풍부하며 자기 확신적인 반면, 여아는 언어적으로 대인 관계를 수행해 나갔고 의존적이며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성 발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범실 1987 재인용).

방인숙(1993)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보였으며, 오시내(1991)는 여아가 남아보다 활동성, 협력성, 독립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남

아는 여아보다 더 공격성을 나타냈다고 한다(연미희 1998). 그러나 차춘희(1983)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했고, 남정자(1986)도 교사예의 의존성을 제외한 독립성, 성취동기,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성차가 없음을 발견하여 일관성이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보면 신은혜(1984)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을 정상아 집단과 문제아 집단으로 분류하여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는데, 독자가 다른 아동보다 문제 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Falbo(1977)는 외동이가 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단정하며 세련되었지만 다소 사교적이지 못함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외동이가 형제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Jiaod와 Ji(1986)는 외동이가 덜 협동적이고 친구의 신뢰를 적게 받으며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김숙경(1989), 김제한(1984)은 외동이가 활동성, 지배성, 사려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을 보고했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정숙(1987)은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 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연미희 1998). 방인숙(1993)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정서적 발달이 더 높음을 보고했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 보다는 일의 종류나 일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미희 1998).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때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은 이후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

로 아동이 적극적으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구성해 주는 것이 이 시기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또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부모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며 일차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부모는 복잡한 사회적 자극을 통해 성장하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혜선 1999).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기질과 행동특성, 부모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서소희 1994),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실제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 6세 유아 114명과 그들의 어머니 114명이다. 이들은 부모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양평과 전북 익산지역의 면소재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 4곳에서 표집되었는데 이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양육 스트레스 검사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신숙재 (1997)가 수정하여 재구성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4개의 하위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Gender of child	male	52(45.6)
	female	62(54.4)
Birth order of child	only child	17(14.9)
	first	52(45.6)
	second or more	45(39.5)
Age of mother	30 or less	19(16.7)
	31~35 age	59(51.8)
	36 or more	36(31.6)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middle school or less	24(21.1)
	high school	58(50.9)
	college or more	32(28.1)
Family income	1,500,000 won less	59(51.8)
	1,500,000-2,500,000 won less	42(36.8)
	2,500,000 won or more	13(11.4)
Religion	protestant	32(28.1)
	buddhism	30(26.3)
	catholic	17(14.9)
	none	27(23.7)
	other	8(7.0)
Family type	large family	59(51.8)
	nuclear family	55(48.2)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이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부모의 기대보다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양육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점수 범위는 30~150점까지이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0.78이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0.8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0.74,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0.7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α 값은 0.8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원 척도

사회적 지원 척도는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을 알아보는 2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우선, 남편의 협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를 기초로 신숙재(1997)가 재구성한 13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하는지를 측정한다. 주위의 도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구체적으로 남편 외의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문

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3) 사회성 발달 검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1978년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5단계 평정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으며, 5개의 하위변인 즉, 내적통제, 다른 유아와의 원활한 상호관계,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 수는 50개이나, 본 연구에서는 만 5세와 6세 아동용으로 각 하위 변인별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8개씩 선정하여 총 40개 문항을 사용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0.64~0.79의 계수를 나타냈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0.78$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어머니 15명과 유치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부의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부터 2004년 9월 까지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양평과 전북 익산의 유치원, 어린이집 4곳에서 만 5~6세 아동의 어머니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검사와 사회적 지원 척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협조로 어머니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 검사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에게 배부된 150부의 질문지 중 114부로서 어머니용 검사와 교사용 검사가 한 쌍이 되지 않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으며,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차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 사후검증으로

Sché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r을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차이 분석, 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발달 차이 분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분석,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차이

먼저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여아보다 남아인 경우 어머니가 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독자와 첫째 아동인 경우가 둘째 이상 아동인 경우보다 어머니가 더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어머니가 36세 이상인 어머니 집단

Table 2. Maternal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related variables

Variables	Daily stress			Stress of difficult child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Educational distress			Total parenting stress		
	M	t/f	S ¹⁾	M	t/f	S ¹⁾	M	t/f	S ¹⁾	M	t/f	S ¹⁾	M	t/f	S ¹⁾
Gender of child	male	26.17		21.13	4.21**		17.62	1.15		10.92	1.23		73.29		
	female	25.82	.93	17.25			17.01			10.21			71.63	1.61	
Birth order of child	only child	25.31		19.91			18.09	A		10.31			73.91		
	first	26.02	.42	19.83	1.21		18.22	4.98**	A	10.51	.82		74.28	1.58	
	second or more	25.92		18.53			16.02	B		10.49			71.82		
Age of mother	30 or less	27.11		20.36			17.92			12.96	A		74.62		
	31~35 age	25.42	1.32	19.62	1.37		17.86	1.10		10.52	4.80**	AB	74.21	1.96	
	36 or more	25.96		18.73			17.25			8.67	B		72.03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middle school or less	26.41		19.63	A		19.58		A	10.47			75.36		A
	high school	26.37	2.43*	18.92	.91		17.87	5.37**	B	10.39	.98		72.96	4.82**	AB
	college or more	24.72		19.17	B		15.87		C	10.41			70.37		B
Family income	1,500,000won or less	27.32		18.87	A		17.40			8.78	B		73.35		
	1,500,000-2,500,000won less	25.16	3.11*	19.22	.82		17.52	.69		10.49	4.52**	AB	72.96	1.11	
	2,500,000won or more	23.04		19.51	B		16.52			12.87	A		70.83		
Religion	protestant	24.21		19.21	B		16.57			10.71			73.21		
	buddhism	24.01		18.32	B		17.79			10.42			72.25		
	catholic	24.11	4.32**	19.12	3.59*	B	17.92	.96		10.49	.12		74.47	1.47	
	none	27.32		20.87	A		17.32			10.42			76.32		
	other	26.99		21.13	A		17.37			10.41			77.01		
Family type	large family	24.61		17.21			17.10			10.02	3.04*		70.27		
	nuclear family	26.49	2.47*	21.17	4.23**		17.87	1.04		12.01			74.96	3.82*	

* p<.05, ** p<.01

S¹⁾ shéffe test

보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일상 스트레스,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일상 스트레스는 고졸과 중졸 이하인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 학력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중졸 이하 어머니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중졸 이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수입에 따라서는 일상 스트레스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일상 스트레스는 월수입이 적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일상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대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가 월수입이 적은 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종교에 따라서는 일상 스트레스,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인 어머니가 종교가 없거나 기타인 경우 보다 모두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일상 스트레스,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 학습 기대 관련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총점에서 모두 대가족인 가정의 어머니가 핵가족인 가정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동의 성별

Table 3.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related variables

Variables	Husband support			Other support			Total social support		
	M	t/f	S ¹⁾	M	t/f	S ¹⁾	M	t/f	S ¹⁾
Gender of child	male	48.62	2.91**	46.12	.72		94.74	1.14	
	female	51.38		45.96			97.34		
Birth order of child	only child	51.27	3.84**	47.75	3.64**		99.02	4.76**	A
	first	51.41		48.02			99.43		
	second or more	47.43		44.21			91.64		
Age of mother	30 or less	52.12	4.27**	46.07	.87		98.19	1.93	
	31~35 age	48.89		46.01			94.90		
	36 or more	48.04		45.94			93.98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middle school or less	49.80	.96	44.07	3.72**		93.87	1.92	
	high school	50.04		47.82			97.86		
	college or more	50.26		48.04			98.30		
Family income	1,500,000won or less	49.97	.32	44.96	2.98**		94.93	1.14	
	1,500,000-2,500,000won less	50.01		45.19			95.20		
	2,500,000won or more	50.04		48.21			98.25		
Religion	protestant	50.01	.38	48.14	3.82**		98.15	1.03	
	buddhism	49.97		46.21			96.18		
	catholic	49.99		47.96			97.95		
	none	50.02		44.02			94.04		
	other	50.01		45.73			95.74		
Family type	large family	48.06	3.02**	48.04	2.87**		96.10	.72	
	nuclear family	51.94		44.01			95.95		

* p<.05, ** p<.01

S¹⁾ shéffe test

에 따라서는 남아인 경우 남편의 협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독자와 첫째 아동의 경우가 둘째 이상 아동보다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음 자녀일 경우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남편의 협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가 31세 이상인 두 집단 보다 남편의 협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편의 협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중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주위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위의 도움을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250만원 이상인 집단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인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원은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발달 차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 중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사회성 중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사회성 총점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안정감과 성취동기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안정감은 첫째 아동이 독자나 둘째이상 아동보다 더 높았고, 성취동기는 첫째 아동이 둘째 이상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4. Child's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lated variables

Variables	Internal control			Inter-correlation			Stability			Achievement motivation			Curiosity			Total			
	M	t/s	S ¹⁾	M	t/s	S ¹⁾	M	t/s	S ¹⁾	M	t/s	S ¹⁾	M	t/s	S ¹⁾	M	t/s	S ¹⁾	
Gender of child	male	26.6		28.4		30.2	27.8		27.3	26.7		140.21							
	female	32.9	5.96**	30.1	2.29*	34.3	4.11**	.41	27.0	.36	152.14	5.31**							
Birth order of child	only child	30.3		28.9		31.0	B 27.1	AB 28.1			142.25	B							
	first	30.5	.52	28.5	1.21	34.1	4.01**	A 29.2	3.96*	A 27.2	1.62	150.62	3.78*	A					
Age of mother	second or more	30.7		30.0		31.2	B 25.3	B 26.1			140.37	B							
	30 or less	30.6		29.6		30.8	B 29.4			143.21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31~35 age	30.1	.43	29.4	.21	31.0	5.12**	B 27.1	2.12	26.2	1.36	148.36	1.96						
	36 or more	30.8		29.5		34.8	A 28.3			145.37									
Family income	middle school or less	30.3		29.7		30.1	C 25.1	B 24.8		C 143.36	B								
	high school	30.5	.62	29.5	.36	32.6	5.87**	B 27.3	3.83*	AB 26.4	4.71*	B 147.27	9.87**	AB					
Religion	college or more	30.7		29.3		34.9	A 29.6	A 29.7		A 151.36	A								
	1,500,000won or less	29.9		29.2		31.2	B 25.3	B 26.4		142.93	B								
Family type	1,500,000-2,500,000won less	30.1	.43	29.9	.96	33.2	4.67**	A 27.2	3.92*	AB 27.1	.25	148.06	5.78**	AB					
	2,500,000won or more	30.3		29.7		34.4	A 29.9	A 27.3		149.31	A								
Religion	protestant	29.3		30.4	A	30.3	B 27.1			142.56									
	buddhism	29.1		30.8	A	35.7	A 26.9			149.62									
Family type	catholic	30.1	.92	29.5	5.49**	AB 33.1	3.86*	AB 27.3	.62	27.5	.96	146.23	1.64						
	none	28.9		26.2	B	32.8	AB 27.0			147.21									
Family type	other	29.7		27.4	B	34.9	A 27.0			143.36									
	large family	32.6	5.47**	30.3	2.31*	34.5	4.14**	27.6		26.9		151.16							
Family type	nuclear family	26.9		28.2		30.0		27.5	.13	26.8	.09	141.19	5.21**						

* p<.05, ** p<.01

S¹⁾ sheffe test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안정감에서 차가 나타나 어머니 연령이 36세 이상인 아동이 그 이하인 두 집단 어머니 아동보다 높은 안정감을 나타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에서 차가 나타나 안정감과 호기심은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 아동이 중졸이하 어머니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사회성 점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사회성 총점에서도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 아동이 중졸 이하 어머니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안정감, 성취동기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 안정감은 월수입이 150만~250만원인 집단과 250만원 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150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성취동기는 월수입이 250만원 이상인 집단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성 발달 총점에서도 역시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월수입이 적은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사회성 발달을 나타냈다.

종교에 따라서는 상호관계와 안정감에서 차가 나타났는데, 상호관계는 종교가 기독교, 불교인 가정의 아동이 무교나 기타 종교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안정감은 불교와 기타 종교 가정의 아동이 기독교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

족의 아동이 핵가족의 아동보다 모두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 사회성 발달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 총점 간에는 $r=-0.29$ 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는 일상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고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0.35),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0.28), 학습 기대 관련 스트레스(-0.26)의 순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녀의 능력이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아동의 사회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성 발달 하위영역과 어머니의 양육

Table 5.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ternal control	Inter-correlation	Stability	Achievement motivation	Curiosity	Total
Parenting stress	daily stress	-.09	-.27**	-.19'	.05	.09	.07
	stress of difficult child	-.29**	-.18'	-.25**	-.19c	-.23**	-.35**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0'	-.05	-.11	-.26**	-.22**	-.28**
	educational distress	-.08	-.17'	-.10	-.11	-.20**	-.26**
	total	-.17'	-.24**	.04	-.16'	-.16'	-.29**
Social support	husband support	.12	.02	.04	.19'	.20'	.23**
	other support	.37**	.16'	.20'	.05	.07	.17'
	total	.32**	.05	.17'	.25**	.14	.31**

* p<.05, ** p<.01

스트레스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호관계와 -0.24, 내적통제와는 -0.17, 성취동기, 호기심과는 -0.16의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아동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성취동기와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에 따른 사회성 발달 하위영역의 관계를 보면 일상스트레스는 상호관계와 안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는 내적통제, 성취동기, 호기심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는 상호관계, 호기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는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취약한 아동 어머니의 자녀 기질에 대한 이해, 교육, 자녀의 기질을 다루는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변인은 0.3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은 사회성 발달과 0.23의 상관을

나타냈고, 주위 도움은 0.17의 상관을 나타내, 남편의 협력이 사회성 발달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남편의 협력은 아동의 성취동기, 호기심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관계 지향적이기 보다는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주위의 도움은 내적통제, 안정감, 상호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4. 취약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취약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의 값이 .7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은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중 내적통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와 주위도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일상 스트레스, 아동출생 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첫째보다는 둘째 이상이나 외동이인 경우 아

Table 6. The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preschool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ternal control		Inter-correlation		Stability		Achievement motivation		Curiosity	
	b	β	b	β	b	β	b	β	b	β
Gender of child	-.31	.03	-.09	.01	.26	.04	-.56	.10	.33	-.07
Birth order of child	.23	-.18*	.11	.09	.03	.12	.39	.17*	.18	-.04
Age of mother	-.01	.05	-.05	.08	.17	.11	.45	.19*	-.12	-.11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05	.01	.14	.21*	-.04	-.02	.16	-.07	.40	.09
Family income	.14	.07	.05	.23*	.09	.19*	-.17	.04	.03	.11
Religion	.08	.11	-.26	.03	-.16	.20*	.16	.05	-.24	.24**
Family type	1.72E-02	.09	.09	.17*	.07	.25**	-.05	-.08	-.19	-.10
Daily stress	.05	-.17*	-.31	-.28**	.02	-.05	-.08	.09	.05	.07
Stress of difficult child	-.26	-.29**	-.21	-.38**	-.11	-.32**	.21	-.10	.12	-.08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educational distress	.31	-.07	.13	-.31**	.08	-.23*	.29	.02	.41	-.04
Husband support	.10	.10	.07	.11	-.37	.30**	.16	.34**	.07	.24**
Other support	-.03	.29**	-.31E-03	.08	.21	.22*	.23	.09	.11	.10
<i>R</i> ²	.214		.296		.302		.206		.187	
F	4.237**		5.312**		5.937**		3.962**		3.168**	

* p<.05 ** p<.01

동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상호관계에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일상 스트레스, 월수입, 어머니 학력, 가족형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아동이 친구들과 원만히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안정감에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남편협력, 가족형태,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주위도움, 종교, 월수입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에는 남편협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어머니 연령, 아동출생순위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도와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호기심에는 종교와 남편의 협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중에서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잘 다루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에서는 남편의 협력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더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비율은 19%~30% 정도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취학전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아동 및 가정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 변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5, 6세 유아 114명과 그들의 어머니 11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가 여아보다 남아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자나 첫째 아동인 경우가 둘째 아동인 경우보다 어머니가 더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어머니보다 학습 기대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장병옥(198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젊은 어머니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젊은 엄마의 경우 자녀의 학습이나 학업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김경아(1990)와 장병옥(1985)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일상 스트레스는 월수입이 적은 가정의 어머니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가정이 종교가 없는 가정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인 가정의 어머니가 핵가족 어머니 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인 경우 남편의 협력을 더 많이 받았으며, 독자와 첫째 아동인 경우가 둘째 이상 아동인 경우보다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을 모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

수록 남편의 협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이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종교가 기독교와 천주교인 가정이 종교가 없는 가정보다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가정이 남편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대가족인 가정이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먼저 여아는 남아보다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오시내(1991), 방인숙(1993), Ma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사회성 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아동이 안정감과 성취동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안정감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다는 방인숙(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가정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더 높은 안정감과 성취동기를 나타냈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가정의 아동이 높은 상호관계를 나타냈고, 불교와 기타 종교 가정의 아동이 높은 안정감을 나타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의 아동이 핵가족의 아동보다 내적통제, 상호관계, 안정감, 사회성 발달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성 발달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lsky(1984), Crnic과 Greenberg(1990), Mash와 Johnston (1983)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성 발달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아동기 자녀들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가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은 성취동기, 안정감, 호기심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주위의 도움은 내적통제, 안정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편의 협력이 주위의 도움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본 선행 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협력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용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가정 관련변인중에서는 아동출생순위, 월수입, 종교, 가족형태가 영향을 미쳤고, 양육스트레스 중에서는 일상 스트레스,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원 중에서는 남편의 협력과 주위도움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와 남편의 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의 농촌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므로 도구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고, 특히 농

촌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환경변인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들 이외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 작업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학 전 아동 어머니들은 다양한 양육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녀기질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적절한 대처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농촌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남편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모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계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즉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계되는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정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적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석원(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8, 21-37.
-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 경영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이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봉(1996)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한(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일 연구. 서울교대 논문집 17, 491-512.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1991) 사회적 지지와 내외 통제성이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2001)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Sargent의 연구모형 고찰. 영유아교육연구 4, 89-108.
- 박난희(1987) 가정생활에서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 방안.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인숙(1993) 가족형태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은혜(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장애에 관한 상관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

고석원(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오시내(1991) 취약한 아동의 정서반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 장병옥(1985)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1997) 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한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이나 자극 분석-도시와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4), 15-30.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자(1984)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춘희(1983) 부 부재와 모-자 상호작용의 질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발달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향(1993) 취업주부의 가족 자원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형, 이영석, 황인창, 정계숙, 김상호(1978) 유아의 발달 수준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11(8).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ullock JR, Pennington D(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ercept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8, 17-31.
- Cohen S,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illness :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108-119.
- Combs ML, Slaby DA(1977)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In BB Lahey ,A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 New York : Plenum Press.
- Cm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mic KA, Greenberg MT, Rogozin AS, Robinson NM, Basham RB(1983)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Falbo T(1997) The Only Child : A Review. J. of Individual Psychology 33, 47-61.
- Garner PW, Carlson D, Miner JL(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MacDonald K, Parke R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sh EJ, Johnston C(1983)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Provost MA, LaFereniere PJ(1991) Social participation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 evidence for discriminant and convergent validity. Child Study Journal 21, 57-72.
- Sargent LR(1988) Instructional interventions to improve social competence. In GA Robinson(ed). Best Practices in Mental disabilities.
- Unger DG, Wandersman L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